

“휘장을 찢으시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문을 여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내사 우리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가지 살펴본다.

첫째, 분리를 찢으사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분리하는 큰 커튼과 같은 것이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크기는 대략 높이 25m, 너비 8m였고 두께도 약 20cm로, 그 무게도 대단하여 제사장 30명이 힘을 모아야 옮길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방에서 네 마리의 말이 끌어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강력한 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즉,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함께 친밀하고 사랑의 교제를 갖기 원하셨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휘장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상징으로, 죄인들의 접근금지 표시와 같았다. **출 20: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와같이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으셨다. 그래서 직접 죄인을 찾아 이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원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이것이 바로 휘장을 찢으신 첫번째 의미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휘장 뒤에 계신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어 내가 여전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계신 분 있는가.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사, 더이상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분

리시키지 않으시며, 멀리 계시지 않으시다. 더이상 휘장으로 가로막고 계시지 않으사, 우리 모두를 가까이 나아오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신다. 아버지와 아들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 동해에 몇 교회의 연합 집회를 가셨을 때의 일이다. 휘장을 찢으신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더이상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것을 멈추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히 나아가기를 설교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려는 때, 한 백발의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강사 목사님은 당황했는데, 그분이 앞에 나와 자기가 한마디만 해도 되냐고 했다. 알고 보니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다. 장로님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꼭 그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빠를 크게 부르며 울면서 자리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찢겨진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모든 분 되시길 바란다.

둘째, 죄를 찢으사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휘장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상기시키는 상징이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부정한 존재였기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매일과, 매 절기마다 양과 소를 끊어 없이 잡아 그 피를 뿌려야 했다.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질 수도 없었다.

한국 초기 기독교사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한다. 1840년대 평안남도 강서군 벽위에서 양반집 딸로 태어난 전삼덕이란 여성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당시 풍습에 따라

17세에 결혼했고 한평생을 남편에게 속해 살았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후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는 한 마디를 들었으니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이었다. 전삼덕은 평양으로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나, 집에 돌아와 남편과 가족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런 그녀의 믿음을 봤던 스크랜튼 선교사는 그녀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권했는데 문제는 성인 여성이 외간 남자와 둘이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세례를 고안해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방안에 휘장을 치고 작은 구멍을 뚫어 머리만 휘장 뒤로 집어넣어 세례를 줬던 것이다. 그 작은 구멍은 500년 조선의 인습과 남녀차별을 찢은 것과 같았다.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에 구멍을 내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버리셨다. 그저 우리의 인습을 타파하시고 한두명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더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는, 인류의 죄 값에 따른 모든 저주와 형벌, 죽음을 멸하신 것이다. **골 2: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롬 6:6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심으로 내 삶 속의 모든 죄의 저주의 인생도 폐하셨습니다. 나를 여전히 지배하는 죄의 결박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거짓이요 허상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건너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두려움을 찢으사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휘장 앞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에게 휘장은 평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이라해도 그들의 죄로 인해 가장 먼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던 그 순간, 성전을 섬기며 그 광경을 눈으로 봤던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극도의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휘장이 열려 지성소의 보좌가 자기 눈에 보인다는 것은, 곧 자기가 그날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 휘장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다. **그 두려움은 영광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죄로 인한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아닌, 생명과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셨고 죄인이 우리는 더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스패포드라는 1860년대 성공한 법률가요 무디 목사님의 친구요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있다. 어느 해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가게 되며, 가족을 먼저 보내고 뒷따라 가려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며 사고를 좌초했고 결국 4명의 딸이 죽었다. 스패포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극적으로 구조된 아내를 먼저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 그리고 자기 딸들이 죽은 지점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선실에 들어가 어떻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지 알 수 없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고백하게 된 것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되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 **더 이상 분리가 아닌 친밀함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라**

나눔의 시간

1.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고 엄격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가요?
2. 휘장을 찢으셨으니 나는 더이상 거짓된 죄책감 아래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끊고 담대히 지성소로 가십시오.
3.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위를 덮고 흐르는 자유와 평강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